

NS홈쇼핑 8일 '하동관의 하동가금탕' 판매

NS홈쇼핑이 8일 오후 5시45분 하동관과 공동 기획한 '하동관의 하동가금탕'을 판매한다. 담백하고 맑은 국물에 우사태와 우양지를 푸짐하게 담았다. 국내산 대파, 양파, 무의 깔끔함을 더해 하동관에서 맛볼 수 있는 맑고 담백한 국물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방송 중 주문하면 설 명절 연휴 전에 배송된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4대 금융그룹 2020년 실적 살펴보니...

라임펀드와 동학개미가 승부 갈랐다

KB, 3년만에 '리딩금융' 타이틀 탈환
신한 '라임펀드 사태' 결정적 영향
하나는 증권사 약진으로 최대 실적



윤종규 KB금융 회장(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4대 금융그룹 2020년 실적에서 KB금융이 신한금융을 제치고 3년 만에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406억 원의 근소한 차이로 2021년에도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양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사진제공 | KB금융·신한금융

KB금융이 라이벌 신한금융을 제치고 3년 만에 '리딩금융' 타이틀을 탈환했다. 4대 금융그룹의 2020년 실적에 따르면 KB금융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3조45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로 3조4146억 원에 머문 신한금융에 406억 원 앞섰다. KB금융의 리딩금융 탈환은 프러덴셜생명 인수로 몸집을 키웠고, 대표 자회

사인 KB국민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사태

를 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승부는 4분기 라임 펀드 관련 손실에 갈렸다. 3분기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이 2조9502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KB금융 2조8779억 원에 비해 723억 원 앞서 있었다. 하지만 4분기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컸던 신한금융의 자회사 신한금융투자과 신한은행이 각각 1153억 원과 692억 원의 라임 관련 손실을 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양사 당기순이익 차이가 406억 원으로 근소해 올해도 양사의 치열한 리딩금융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3위인 하나금융은 전년보다 10.3% 늘어난 2조6372억 원의 당기순

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비은행 부문 중 증권사 실적이 약진하며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린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증권사에 주식 위탁수수료 수익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금융투자는 전년 대비 46.6% 늘어난 410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우리금융은 전년 대비 30.18% 감소한 1조307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자회사 증권사가 없어 증시 호황의 반사 이익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NH농협금융은 16일 2020년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현대차그룹 '애플카' 협력 중단되나?
협력설 관련 재공시 예정...주주들 불안감 커져

애플이 현대차그룹과 애플카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말 사이 현대차그룹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밀유지 협약을 매우 중시하는 애플이 애플과의 협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현대차그룹의 1월 공시와 각종 언론 보도에 화가 났을 것"이라며 "애플과의 협상은 중단됐고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월요일 장 개장을 앞둔 주주들은 주요 포털 종목토론포에 수천 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애플과의 협상 중단이 급격한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것은 아닐지를 걱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8일 애플카 협력설과 관련해 재공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1월 8일 공시처럼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어떤 구체적인 소식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대한항공, 화물 호조로 선방...하지만 올해도 가시밭길

화물 매출 4조2507억...66% 증가
올해 여객 수요, 2019년의 절반 예상

대한항공이 지난해 화물 분야의 깜짝 호조 등에 힘입어 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지만,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 한다.

대한항공은 잠정집계한 2020년 영업실적에서 매출 7조4050억 원, 영업이익 2383억 원, 당기순손실 2281억 원 등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 특히 여객 부문이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하지만 화물 매출이 4조2507억 원으로 2019년보다 66%나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0%나 줄이는 등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도 흑자달성에 큰

몫을 했다.

글로벌 항공산업의 심각한 경영난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성과이다. 실제로 미국의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이나 일본의 전일본공수(ANA)는 모두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경영선방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대한항공 앞에는 어려운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여객 수요가 2019년의 50%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물수요는 2019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과제는 3월 3조3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제현장.jpg

“두꺼비로 두꺼운 사랑 전해요”



7일 편의점 이마트24 성수대우점에서 모델과 두꺼비 캐릭터가 밸런타인데이 기획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두꺼비 캐릭터를 내세운 '저금통 세트'를 내놓았다. 파란 두꺼비 모양 저금통에 초콜릿을 담았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이마트24

LG전자,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LG전자는 KCH그룹,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에 단일 현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진)을 완료했다.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92메가와트(MW),

배터리 용량 340메가와트시(MWh)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350킬로와트시(kWh)임을 감안해 가구당 매일 11.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만90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안핵성 LG전자 ESS사업담당 상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 편의성, 안전성을 모두 갖춘 ESS 토털 솔루션과 믿을 수 있는 사후관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unh@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중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성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바전 010-9220-4334 / 권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임원성 010-3315-1517 / 성경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만 010-4741-7008
초전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임원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환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희 010-6258-3510 / 오영숙 010-8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포종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하현석 010-4707-2659
한신회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드러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베르토 010-6806-1931 / 노수필 010-5153-5983 ● 평강 교영실 010-5463-6952 ● 중국 장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